

문화특선



샘골보건지소 건강프로그램 운영

시민들의 건강자킴이로 지리매김되고 있는 샘골보건지소(이하 샘골지소)가 제2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샘골지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2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 1회 각각 12회씩 요가 및 기공체조 교실과 집불(성인·청소년), 신바람, 9988 건강체조, 스탬프스 운동, 남성 어르신 기체조 교실 등 총 8개 과목으로 운영된다.

샘골지소 관계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유연성 증진, 근력 강화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28일부터 28일까지 샘골지소에 접수하면 되고, 운영은 샘골보건지소 교육실(2층)에서 실시된다.

한편 샘골지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2회에 걸쳐 1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샘골지소 관계자는 "특히 신설된 남성 어르신들의 근력강화 및 규칙적 운동을 돕는 기체조 교실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샘골지소(☎ 063.539-6751~67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음=김대환기자

부안보건소 방역소독기 점검·수리

환절기를 앞두고 부안군 보건소가 군에서 보유 중인 차량·휴대용 방역소독기에 대해 일제점검 및 수리했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 지구연산화에 따른 파리, 모기 등 해충 출현 증가와 최근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방역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하절기 방역을 앞두고 13개 읍·면 및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기를 일제점검하고 가동 시험을 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문업체 기술자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방역장비 고장 및 노후로 인해 방역소독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휴대용 소독기를 사전 점검하고 올바른 기기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부터 환절기 등 유충 서식지 제거를 하려고 정화조, 하수구 등에 대해 유충구제를 위한 해빙기 방역을 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지역 주민에게 모기사냥처 제거를 위해 취약지역 집중 환경정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음고부파출소, 민집 예약순찰

정음경찰서(서장 김주원) 고부파출소(소장 이강욱)가 농촌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민집 예약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야외회를 떠나는 당일 관광버스기사를 읍주감지 및 장거리 여행 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혜위주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약순찰제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구대나 파출소에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 집중순찰 및 거점근무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이상유무를 예약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지해 주는 제도이다.

예약순찰제를 이용한 주민들은 "경찰관이 마을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이상유무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경찰관이 문자서비스도 해주고 교통안전교육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기자

타지역 연수업체 이용 '눈총'

김제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연수 역내 여행사 외면 지역상생 '뒷진'

김제시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정책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여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경제 상생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현 정부 핵심정책인 규제개혁평가에서 2014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해, 제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28명의 사기진과 및 정책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확보와 선진 마인드 함양을 위해 2,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1일(3박4일)까지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추진했다. 김제시는 규제개혁우수공무원 선진정책 연수를 추진하면서 행사성 소모성 연수를 지양하고 자치단체별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정책 재생산 효과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지만 이번 타 지역여행사 수의계약으로 연수약비가 퇴색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좁지 않은 눈총을 받게 됐다. 지역의 모 여행사 관계자는 "요즘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시키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역경제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지역업체도 아닌 타지 업체와 연수를 추진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규제개혁의 동력을 다시 한번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담당직원들 격려 등을 겸한 정책연수였다"며 "지역여행사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당초 계획한 교육우위의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발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졸포면 마실 축제 협의회는 제4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부안 민복 대형연과 보리 개떡을 만들어 전달했다.

부안졸포면, 대형연에 마실축제 성공기원 담아 전달

부안군에게 보리개떡과 함께

졸포면 마실 축제 협의회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제4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졸포면민의 염원을 담은 부안 민복 대형연(120cmX163cm)과 축제시 추억의 먹거리로 판매할 보리 개떡을 만들어 김중규 부안군수에게 전달했다. 졸포면 마실 축제 협의회는 이번 마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부안 민복 퍼레이드"를 고민하던 중 견고하고 맛 좋고 머물고 싶은 졸포와 오복이 가득한 축복의 땅 부안이 바람을 타고 날리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연 퍼레이드를 구상, 대형연과 소형연 100개를 직접 제작하였고, 졸포면 마실 축제 협의회는 "이 대형연에는 부안 민복(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졸포면민의 기대와 면민 모두가 땀 흘려 부쳐 마실 축제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부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았다"고 전했다. 유인갑 졸포면장은 "졸포면민 모두가 5월에 개최된 부안마실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동행하고 있다"며 이번 부안 민복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부안의 오복 소형연을 나눠줘 면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하는 방법 등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박상문 교원동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라며, "오는 13일에 주민모두가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교월동, 4·13 총선 투표참여 독려 거리캠페인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11일 통장협의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4월동 통장회의를 마친 후 진행된 캠페인에서 주민센터 직원과 협의회원들은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투표일과 투표장소 등을 안내

하는 방법 등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박상문 교원동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라며, "오는 13일에 주민모두가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연분홍 빛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송소희의 경기민요 '매화타령'과 '경복궁타령' 공연 등이 펼쳐졌다.

KBS국악한마당 정음공연 성료

국악소녀 송소희 민요 등 다채롭게 펼쳐

정음시와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주관한 KBS 국악한마당 정음공연이 지난 9일 정음천변 야외특설무대(구, 보건소 앞에서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연분홍 빛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펼쳐진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국악과 '신바람, 새로운 길'을 비롯 천재국악소녀로 인기 높은 송소희의 경기민요 '매화타령'과 '경복궁타령' 공연이 펼쳐졌다. 또 전통무용 화선무(정지문 무용단)와 장구놀이(정음우도농악보존회)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화창한 봄날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장을 찾은 김생기 시장은 "이

번 공연은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송소희씨와 정음농악보존회 등 청장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화려한 봄날의 시민화합 한마당이 됐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마련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의 질적인 발전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국악한마당 정음공연은 지난해 11월 첫 공연, 올 1월 공연에 이어 세 번째에 마련된 것으로, 세계적 체류형 관광도시 정음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고장으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음=김대환기자

김제시, 기초수급부정 근절 총력

29명 구성 4개반 운영

김제시는 2016년 복지재정예산과 관련하여 누수 없는 예산집행 및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부정수급 근절 추진반을 구성했다. 부정수급 근절 추진반은 총 4개반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지원국장이 중심이 된 총괄반, 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반, 홍보반, 시설 관리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제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이 중심이 된 발굴반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총 8개 복지급여 수급자 및 관내 714개소의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타 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부

정 수급을 방지하고, 환수반과 시설관리반은 자체·수시점검으로 부정 지급된 복지예산은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반은 시설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 계시판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하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이외에도 시민들이 부정수급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김제시 홈페이지에 복지포 매너를 설치하고, 전화 우편과 복지포를 통한 신고, 접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근절 활동으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box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